

도리안전사 제공 태양광 패널 설치 안전작업 장비



태양광 발전관련 제품으로 눈길을 끌었던 제품 중에는 태양광 설비를 지붕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헬멧, 추락방지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전문 취급하는 업체도 있어서 관련 틈새시장에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환경부문의 노력의 장

금번 포트메세나고야 2010은 국제 환경관련 회의와 함께 개최되면서 기존 전시회보다 높은 수준의 다양한 환경관련 제품과 상품화 아이디어들이 소개되었다. 이는 친환경 제품 우호성향이 되어가는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은 물론, 기업의 사회적 의무 측면에서 상시 고려해야 하는 지속가능 발전(Sustainable Growth)에도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 커피'를 제공하는 전시장 내 간이매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근시안적인 대량생산, 소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되며 현재의 자원·환경을 후세가 동일수준에서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물론 사회전반의 지속가능 발전 참여의식이 높아

져야 할 때이며, 일본 제조업의 중심인 나고야에서 이러한 전시회가 개최되는 점은 전시회의 개최의의를 더욱 높여준다고 하겠다. 전시회장 외곽에는 사전등록자에게 간단한 음료를 제공하는 간이매점이 있었는데 커피의 명칭을 '서스테이너블 커피(Sustainable Coffee = 지속가능 커피)'라고 정하고 있어서 잠시나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하여 음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

브라질 환경산업 전시회 FIMAI-SIMAI 2010

외국 업체 100여 사 포함 400여개 업체가 참가
1999년 첫 개최 이후 성사 계약 규모는 1400% 성장

올해로 12회를 맞는 상파울루 환경산업전시회 "FIMAI"가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브라질 상파울루 시 소재 Expo Center Norte에서 개최되었다. 동 전시회는 남미 최대 규모의 환경 산업 전시회로 환경 산업과 관련된 각종 기술 및 장비, 솔루션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외국 업체 100여 개사를 포함한 400여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행사 기간 동안 7건의 환경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열려 1200 여명이 세미나에 참석한 것

로 집계되었다.

또한 방문객 수도 40,000 여명이 넘는 등 어느 때보다도 성황리에 행사를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들은 행사장을 방문한 바이어와 11억 헤알(1달러=1.72헤알) 상당의 계약을 성사(전시회 후 완료될 예정인 계약 포함) 시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금액으로 브라질 환경산업 미래에 대한 업체들의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시 품목

- 환경 보호 솔루션
- 기계 장비의 친환경적 개발 솔루션
- 친환경 화학 산업
- 환경 감시 기술 및 장비
- 위험 물질(산업 쓰레기 등) 관리 및 처리 기술
- 근무 안전 프로그램
- 산업용 오수 처리 기술 및 장비
- 오염지역 토질 개선 기술 및 장비
- 환경 관련 인증 등

외국 업체 참가 눈에 띄게 증가

올해 전시회의 경우 이탈리아, 독일, 일본, 스페인, 체코, 덴마크, 중국, 미국, 노르웨이, 영국, 영연방,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 16개국으로부터 총 102개의 기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별 반응

영국업체들은 브라질 환경 산업이 향후 크게 성장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고객과의 유대관계를 다지는 한편 신규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업체가 전시회에 참가한 독일의 경우, FIMAI-SIMAI는 환경 산업과 관련된 남미 주요 바이어를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참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업들은 “브라질 환경 산업이 매우 유망한 시장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다수의 신규 바이어 발굴을 기대한다.” 라고 언급하는 등 기대를 표명하였다.

일본의 경우 환경 보호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 분야 첨단기술을 브라질 시장에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쓰레기 재활용 관



이번 전시회에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쓰레기 재활용 관”이 설치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쓰레기 재활용 관”은 외부

벽을 투명하게 만들어 관람객들이 전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가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처리되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회 통계

FIMAI는 1999년 제 1회 전시회가 개최된 이래 2010년까지 매년 전시회가 열렸다. FIMAI 주최업체인 “Revista Meio Ambiente”에 따르면 1999년 70 여 개사에 불과했던 전시업체수가 2009년에는 400개로 늘어나 약 250% 성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시회 참가 외국 업체 수는 무려 2650%, 성사된 계약 규모는 1400%, 방문객 수는 200% 각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Tetra Pak 포장용기를 재활용한 제품



전시장 내부



산업 쓰레기 분쇄 장비



산업 쓰레기 처리 업체 Opersan 부스



자료원 : 전시회 Press Release, 상파울루 KBC 자체 조사 자료 종합

전시회 개요

- 전시회명 : FIMAI e SIMAI(Feira Internacional de Meio Ambiente Industrial e Sustentabilidade e Seminário Internacional de Meio Ambiente Industrial e Sustentabilidade)
- 개최장소 : Expo Center Norte
- 개최기간 : 2010년 11월 9일~11일
- 전시회분야 : 환경 및 관련 산업제품 전시회
- 주최자 : Revista Meio Ambiente Industrial
- 웹사이트 : <http://www.fimai.com.br>
- 참가사 수 : 400 개사